

## 【강좌】

# 형이상학적 죄로서 무병(巫病)<sup>\* \*\* \*\*\*</sup>

— 현기영의 <목마른 신들> 읽기 —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철학

jslee@konkuk.ac.kr

### <국문초록>

필자는 이행기 정의의 관점에서 현기영의 소설집 『마지막 테우리』에 실린 두 개의 작품 「목마른 신들」과 「쇠와 살」을 검토하였다. 「목마른 신들」은 제주4.3사건에서 학살당한 자와 학살자 간에 화해를 다루었고, 「쇠와 살」은 일종의 르포소설로서 4.3사건의 작은 일화들을 엮어서 4.3의 전모를 드러냈다. 필자는 「목마른 신들」을 분석하는데 형이상학적 죄, 지속가능한 화해, 책임의 상속이라는 관념을 활용하였다. 우선 작가와 무당, 그리고 가해자의 손자의 의식을 형이상학적 죄로 해명하였다. 형이상학적 죄는 나치범죄에 대한 독일인의 책임을 해명하기 위해 야스퍼스가 도입한 극한적 개념이다. 형이상학적 죄의 근거는 악행에 연루됨이 아니라 희생자와 운명을 함께 하지 못함에 있다. 그것은 도덕적인 잘못에 기초한 죄가 아니라 일종의 부채감이며, 흔히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죄책감이 우울증으로만 머문다면 자기파괴를 유발할 소지가 크다. 작가는 죄책감을 무병의 용광로 속에서 화해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면서 죄의 정치를 펼친다. 가해자의 손자는 귀신들림을 통해 할아버지의 죄를 상속하고 혼령이 제시한 해법으로서 제사봉사가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화해를 공고하게 만든다. 억울한 혼령과 가해자간의 개별적 화해가 국지주의의 덫에 빠질 우려도 있으나 작가는 백조일손지지라는 판타지 속에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킨다. 「목마른 신들」은 이행기 정의의 기본 원칙들을 문학적으로 함당하게 형

\* 심사위원: 김도균, 엄순영, 임미원

투고일자: 2015.1.17. 심사개시: 2015.1.18. 게재확정: 2015.1.30.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9-361-A00008).

\*\*\* 이 글은 문학카페 유랑극장이 기획한 문학행사 제주편(2014년 5월 10일 제주 벤처마루)에서 필자가 했던 강연을 수정한 것이다.

상화하였다.

주제어: 마지막 테우리, 목마른 신들, 무병, 살아남은 자의 죄, 죄와 살, 제주4.3사건, 죄의식, 죄의 정치, 죄책감, 지속가능한 화해, 책임의 상속, 현기영, 형이상학적 죄

< 차례 >

- I. 들어가는 말
- II. 형이상학적 죄
- III. 제주도에서의 죽음
- IV. 책임의 상속과 화해, 그리고 판타지
- V. 죄와 살

## I. 들어가는 말

제주의 밭에서 건져낸 돌로 쌓아올린 밭담이 중국의 만리장성보다 길다고 한다. 4.3사건을 둘러싼 사연들은 밭담보다 길어서 화산섬이 사라지더라도 끝도 없이 물살을 일으키지 않을까! 말문을 닫고 그 바다를 떠도는 원혼들이 있으니 바로 ‘목마른 신들’이다. 작가 현기영의 유쾌함이라면 그 혼령들의 깊은 상처에 응답하리라 기대해 본다. 작가는 이 세계의 불행을 제거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할 책무를 지고 있다. 언어는 인간들 사이에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인간을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가란 현실에 밀착해 있으면서도 초월을 꿈꾸므로 영락없는 실존주의자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책무는 특출한 역량과 경륜을 지닌 작가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아에 대한 성찰, 역사적 책임감, 한 마디로 진정성의 의무는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소설가 현기영은 현실에서 이러한 책무를 다하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그는 『순이 삼촌』, 『바람 타는 섬』, 『변방에 우짖는 새』, 『마지막 테우리』, 『지상에 순가

락 하나』등을 통해 4.3사건과 제주도 민초들의 삶에 천착해 왔다. 어쩌면 제주4.3사건의 희생자들, 제주 산야에 떠도는 ‘목마른 신들’이 작가 현기영을 영매로 보유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4.3의 작가’라는 낙인이 그의 어깨에 무거운 돌을 하나 더 지우는 것이라 우려되지만, 그렇게 규정받으면 또 어떠랴! 진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영혼에 박힌 가시를 밀치며 어떠한 세계를 열망하는지가 아닐까?

이 글은 현기영의 작품집 『마지막 태우리』에 실려 있는 「목마른 신들」과 「쇠와 살」 두 편을 논평의 소재로 삼았다. 두 작품은 모두 1992년에 발표되었다. 「목마른 신들」은 국가범죄의 청산과 화해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모로 흥미로운 작품이다. 「쇠와 살」은 여러 짧은 일화들을 엮어 4.3사건의 서사를 완성하고 있기에 역사기술자로서 작가의 비장함을 엿볼 수 있다. 처음에는 「쇠와 살」을 조정래 선생의 『태백산맥』같은 대작을 위한 작가노트 쪽으로 여기다가 『인디오 파괴의 역사(略史)』에 견주어도 보았다.<sup>1)</sup> 「쇠와 살」은 작가의 진실규명의지에서 나온 르포 형식의 소설이자 10여년 뒤에 세상에 나오게 된 진상조사보고서의 예행연습과도 같다. 그 작품을 발표한 해가 1992년이라면 아마도 작가는 1999년의 제주 4.3특별법의 제정이나 2003년의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발간까지는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어쨌든 ‘쇠와 살’의 명징한 대비에서 세상에 대한 작가의 의식이 신랄하게 다가온다. 필자는 그 의미를 글의 막바지에서 국가폭력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되돌려 보겠다.

문학이든, 법학이든, 인간의 정신을 다루는 학문이라면 본질적으로 해석적인 활동이다. 해석활동은 텍스트, 작가의 의도, 발생의 맥락뿐만 아니라 해석자의 맥락까지 교차시키는 작업이다. 문학작품, 법령, 성서까지도 정신의 창조물인 동시에 정신의 창조적인 해석을 기다리는 반제품이다. 물론 해석의 대상들 간에 존재하는 차이를 애써 무시할 수 없지만, 정신활동의 역사는 재해석과 변혁의 영구적 과정이다. 그래서 해석은 작가가

1) 예수회 신부였던 라스 카사스는 16세기에 스페인 정복자들의 만행을 인류에게 전하기 위하여 희생자의 관점에서 기록하였다. Bartolomé de las Casas, *A Short Account of the Destruction of the Indies*(Penguin, 2004).

앞서 생각했던 바를 해석자가 나중에 생각해보는 것(Nachdenken eines Vorgesdachten)이 아니라 작가가 생각했던 바를 해석자가 궁극에까지 생각하는 것(Zuendedenken eines Gedachten)이라는 법철학자 라트브루흐의 통찰<sup>2)</sup>에 따라 현기영의 작품을 읽어보겠다.

6.25전쟁을 전후하여 특히 전쟁 초기에 대한민국 군정은 전국적으로 민간인에 대해 대규모 학살을 자행했다. 지난 노무현 정부시절에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작업을 통해 학살의 윤곽이 드러나기에 이르렀다. 제주4.3사건은 그러한 학살의 서막이었다. ‘목마른 신들’은 다른 말로 하면 구천을 떠도는 원혼들, 무참하게 찢겨지고 망각된 존재들을 의미하며, 소설은 바로 그러한 목마른 신들이 벌이는 인정투쟁이자 화해극이라고 할 수 있다. 「목마른 신들」에는 억울한 희생자, 학살자, 무고한 매개물, 화해자가 등장한다. 제주4.3사건에서 억울하게 죽은 열일곱 살 영수의 혼령, 학살자였던 서북청년단 노인, 억울한 혼령의 자장에 간혀 죄를 상속받은 서청 노인의 손자, 화해자로서 심방 등이다. 어쨌든 열일곱 순수의 세 인물(영수, 심방, 손자)이 시간을 가로질러 기억과 상처를 뚫고 공명하며 ‘애도의 정치’<sup>3)</sup> ‘죄의 정치’ 또는 ‘화해의 정치’<sup>4)</sup>를 펼쳐간다.

2) 라트브루흐/최종고(역), 법철학(삼영사, 2002), 159쪽.

3) 애도(Trauer)의 의미에 대해서는 프로이트/윤희기·박희부(옮김),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열린책들, 2014), 243-265쪽; 애도의 정치를 통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고찰한 연구로는 정원옥, 국가폭력에 의한 의문사 사건과 애도의 정치(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권창규, “어떤 죽음을, 어떻게 슬퍼할 것인가: 세월호에 대해, 세월호로부터”, 진보평론 61호(2014 가을호), 22-36쪽.

4) 야스퍼스의 ‘죄의 정치’에 아렌트의 ‘화해의 정치’를 대비할 수 있겠다. 아렌트는 정치와 도덕,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구분 위에서 정치를 논했으며, 야스퍼스의 형이상학적 죄 개념도 반정치적(anti-political)이라고 거부하였다. 감상주의적인 죄의 정치가 개인적 감정에 치중하여 인간들 간의 ‘사이공간’을 위축시키고 정치의 영역에 죄라는 절대적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정치적 타협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특히 모두가 죄인이라는 논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추궁하지 못하게 하여 모두를 무책임하게 만들면서 현실도피를 조장한다고 보았다. 죄는 반정치적이며, 정치에서 하나의 악이라고 판단하였다. 물론 아렌트의 지적이 액면 그대로 야스퍼스에게 적용하지는 않는다. 야스퍼스도 집

유신시대에 발표된 「순이삼촌(1978)」에서 작가는 살아남은 자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 평약을 먹고 생을 마감한 주인공을 통해 독자들에게 피해자들의 절망을 응시하도록 촉구했다. 이 작품은 4.3사건의 본질을 두고 당시 지배이데올로기에 맞서 홀로 분전을 펼친 작가의 결기를 느끼게 하고 이로 인해 작가가 겪었던 고초도 짐작하게 한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유년기의 4.3사건에서 시작하여 순이삼촌의 불행한 종말까지 때로는 분노를 터뜨리지만 전반적으로 관찰자의 담담한 시선을 유지했다. 이에 비해 「목마른 신들」에서 작가는 회색지대의 인물<sup>5)</sup>을 등장시켜 화해의 정치를 펼쳐 보인다. 「순이삼촌」에서 작가는 살아남은 자를 ‘그때 이미 죽은 자’<sup>6)</sup>로 규정했다면, 「목마른 신들」에서는 살아남은 자를 고통의 구제자로 변전시킨다. 이 작품은 유신체제와 신군부의 독재를 버텨내고 87년 민주화 시대를 맞은 작가의 낙관적인 정치적 비전을 느끼게 한다. 더구나 망

---

단적 죄를 부인하였다. 그는 도덕과 정치의 상호교착을 주목하고, 도덕적 쇄신 없이는 정치적 자유도 불가능하며 새 출발을 위해 정치적 도덕적 정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두 사람의 입장 차이에 대해서는 Schaap, Andrew, “Guilty Subjects and Political Responsibility: Arendt, Jaspers and the Resonance of the ‘German Question’ in Politics of Reconciliation”, *Political Studies* Vol. 49(2001), 749-766쪽; La Caze, Marguerite, “At First Blush: The Politics of Guilt and Shame”, *Parresia* 18(2013), 85-99쪽. 이러한 죄의 정치가 국경을 넘어서 대두된다면 국제관계는 난관에 봉착할 우려가 크다. 이런 맥락에서 임지현 교수가 제안한 희생자의식 민족주의(victimhood nationalism)는 희생자의식의 과잉에 바탕을 둔 맹목적인 죄의 정치에 대한 비판틀로 읽힌다. Jie-Hyun Lim, “Victimhood Nationalism and History Reconciliation in East Asia”, *History Compass*, vol. 8(2010), 1-10쪽.

- 5) 완전한 선인, 완전한 악인을 상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유대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프리모 레비는 수용소에서 수용된 유대인들도 얼마나 인간성이 파괴되어 갔는지를 증언한다. 레비/이현경(역), 이것이 인간인가(돌베개, 2010).
- 6) 작가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오누이가 묻혀 있는 그 움푹받은 당신의 숙명이었다. 깊은 소(沼) 물귀신에 채여 가듯 당신은 머리끄덩이를 잡혀 다시 그 밭으로 끌리어갔다. 그렇다. 그 죽음은 한 달 전의 죽음이 아니라 이미 30년 전의 해묵은 죽음이었다. 당신은 그 때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다만 30년 전 그 움푹밭에서 구구식 총구에서 나간 총알이 30년의 우여곡절한 유예를 보내고 오늘에야 당신의 가슴 한복판을 꿰뚫었을 뿐이다.” 인용은 현기영, 순이삼촌(동아출판사, 1995), 101쪽.

자의 혼령이 가해자에게 제사지내 달라고 재촉하는 부분에서 권리감정의 발전을 실감케 한다. 이 소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목마른 신들」은 한라산 중산간마을 눈메드르를 고향으로 둔 환갑을 넘긴 심방(무당의 제주방언)이 열일곱 나이에 뜻하지 않게 서북청년단의 스키쿼터 운전사가 되어 이른바 빨갱이 사냥을 안내하였던 고통스러운 과거를 회상하면서 시작된다. 그는 고향마을에 대한 서청의 살육작전을 통사정하며 막기는 하지만 결국 군대의 초토화작전에 어머니를 잃고 만다. 그 후 6.25전쟁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한 후 귀향하지만 스무 살 나이에 희망을 잃어버린 이 청년은 자살하려고 수면제를 털어 넣지만 죽지 못해 살아난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학살 이후 제주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모습이었다. 학살현장에서 어린 오누이를 잃은 날 이미 죽은 것이나 진배없는 ‘순이 삼촌’과 달리 이 청년은 극심한 무병(巫病)을 앓다가 심방의 길로 들어선다. 그는 어린 시절 무당인 어미를 무던히도 멀리시하였는데 이제 죽은 어미를 진혼하면서 내림굿을 받기에 이른다. 그는 죽은 님을 부르고 상처를 치유하는 존재로 발전한다. 그가 바로 상처입은 치유자이다. 그는 40여 년간 심방노릇을 하던 중 4.3사건 피해자의 혼령을 위로하는 귀양풀이도 몇 차례 벌였는데 근자에 놀라운 사건을 겪게 된다. 어느 여염집 17세 학생이 시름시름 앓고 귀신 들린 사람처럼 이상행동을 보인 것이다. 심방은 잡귀풀이로 귀신을 얼려 보는데 그 주인공이 뜻밖에도 4.3사건에서 억울하게 죽은 영수의 혼령인 것이다. 심방은 아무런 연고도 없어 보이는 혼령이 왜 이 학생에게 붙었는지를 궁리하다가 그 할아버지의 얼굴에서 역사적 업보(業報)를 알아챈다. 바로 그 노인네가 4.3사건에서 학살과 협잡을 일삼던 서북청년단원이었다.

## II. 형이상학적 죄

제주4.3사건을 다루는 작가의 내면과 주인공들의 의식을 형이상학적 죄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보려고 한다. 아마도 이 분석을 전체적으로 소설

가 현기영의 ‘죄의 정치’라고 부를 수 있겠다. 철학자 야스퍼스는 제2차 세계대전후인 1946년에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나치의 범죄와 관련하여 독일인들에게 도대체 어떤 죄와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강연했다. 형이상학적 죄라는 말은 그 때 야스퍼스가 처음 사용한 개념이었다. 이는 그만큼 인간 정신의 미묘함을 표현하기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적 자원이 많다는 점을 가리킨다. 형이상학적 죄 자체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현실적인 징후들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sup>7)</sup> 어쨌든 형이상학적 죄가 지칭하는 징후들은 일단 부정의 모습으로 비치지만 끝내 부정적으로만 사유한다면 더 깊은 나락에 빠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형이상학적 죄가 지시하는 죄의식과 우울증을 정치의 긍정적 에너지로 전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sup>8)</sup>

야스퍼스는 네 가지 죄 개념, 즉 법적인 죄, 도덕적인 죄, 정치적인 죄, 형이상학적 죄를 제시하였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사회에서도 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을 진 범법자들 이외에 구조적인 책임을 규명하려는 입장이 다각도로 개진되었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주장에서 인성과 문화를 주시하는 입장 또는 관료제와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입장까지 펼쳐졌다. 여기서 단순한 태일이 아니라 정밀한 비판과 이해를 통해 종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야스퍼스는 책임을 엉터리 판사의 눈대중처럼 무분별하게 혼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여러 유형의 죄(책임)들이 상호 삼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그는 책임은 분산이 아니라 통합이고, 궁극적으로 하나에 이른다고 주장하였다. 필자는 야스퍼스의 경건주의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내면의 혁신이 없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새 출발이 불가능하다는 그의 주장에는 공감한다. 죄에 대해 부연해 보겠다.

첫째로, 법적인 죄는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행동으로서 집단살해, 살인, 방화, 고문, 인체실험, 강제노동, 강간 등으로 전쟁범죄와 인도에

7) 이에 대해서는 이재승, “국가범죄와 야스퍼스의 책임론”, 사회와 역사 101호 (2014.5), 183-217쪽.

8) 주디스 버틀러/양효실(역), 불확실한 삶(경성대학교 출판부, 2008), 45-84쪽; 김종곤, ‘세월호 트라우마와 죽은 자와의 연대,’ 진보평론 61호(2014/가을호), 71-88쪽.

반한 범죄를 말한다. 이러한 범죄를 자행한 자들에게는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보듯이 형벌이 기다린다. 전쟁지도부, 나치당원, 돌격대원, 특공대원, 보안경찰 등 소수의 독일인이 이러한 범죄자에 해당한다.

둘째로, 전쟁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나치정권을 지지하거나 협력하는 자는 도덕적인 의미에서 유죄다. ‘하일 히틀러’를 외치고 충성선서를 하고, 권력에 부화뇌동하고, ‘겉으로는 이래도 속으로 저항한다’는 식의 자기기만, 양다리 걸치기 등의 행태가 도덕적 죄이다. 나치독일을 살았던 보통사람들 대부분은 이러한 행태를 통해 도덕적 죄를 저질렀다. 야스퍼스는 그 자신도 이러한 유형의 도덕적 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하였다. 유대인에게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전쟁범죄를 자행하지 않았더라도 인종적 편견을 조장하거나 전쟁정책에 동조하거나 침묵한 사람은 바로 도덕적으로 유죄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인적인 도덕적 죄들이 누적되고 합산되는 경우에 그것은 사회전체의 차원에서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죄가 된다. 더러운 시나물이 합류하여 호수 전체를 오염시키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도덕적인 죄를 면하려면 정치의 세계와 인연을 끊고 산으로 들어가거나 적극적으로 독재와의 투쟁에 자신을 바쳐야 한다. 조선 왕조에 충성을 거부하고 두문동(杜門洞)에 은거한 현인들, 독재에 항거하거 처형당한 백장미단원들이나 인혁당사건 희생자들이 좋은 실례이다. 이와 같이 비타협적인 은둔자나 적극적인 저항자를 제외한다면 시대를 사는 누구나 독재와 학살에 대해 도덕적 유죄이다. 야스퍼스는 자신의 양심만이 이러한 도덕적인 죄를 환하게 통찰하고, 도덕적 죄를 통찰함으로써 평화의 길로 들어선다고 주장한다.

셋째로, 정치적인 죄는 전쟁범죄와 유대인 학살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야만을 자행한 국가의 시민이라는 사실에 있다. 정치적 죄는 국가의 구성원, 즉 지위로 인한 것이기에 운명적인 책임으로 들린다. 국민은 그 나라의 전통, 역사, 정체성을 공유하고 국가가 주는 편익을 향유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국가의 일원으로서 정치과정에 참여하므로 그 나라가 자행한 악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평화주의자가 온 생애에 걸쳐서 자국의 전쟁광들을 비판하고 투쟁하다가 오랫동안



감옥에서 고초를 겪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전쟁과 야만을 막지 못했고 그 체제를 자력으로 타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정치적 책임은 결과책임이다. 백이와 숙제도 도덕적 책임을 피할 수는 있어도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못한다.<sup>9)</sup> 물론 야스퍼스는 정치적 죄는 개인적 책임이 아니라 국민의 집단적 책임이라고 이해한다.<sup>10)</sup> 이러한 정치적 죄를 갚는 길(책임)은 학살과 야만을 낳는 구조를 바꾸는 미래지향적 정치적 행동에 있다.

마지막으로, 야스퍼스는 형이상학적 죄를 언급하였다. 그는 이미 죄를 한계상황의 문제로 다루었는데 여기서 실존주의 철학자로서의 면모가 돋보인다.<sup>11)</sup> 형이상학적 죄에 대한 그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인간 상호간에는 연대가 있다. 세상에서 자행되는 모든 불법과 모든 불의에 대해, 특히 자신이 있는 곳에서 또는 자신이 알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범죄에 대해 인간 각자의 공동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바로 이 연대다. ... 그러한 범죄가 자행되었는데도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씻을 수 없는 죄가 되어 내게 돌아온다. ... 우리는 인간으로서 목적 없이, 즉 성공의 가망이 없는데도 무조건적으로 생명을 바칠 것인지, 아니면 성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할 것인지 사이에서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한계에 직면한다. 이웃 사람들에게 범죄가 자행되는 경우 ... 어쨌거나 함께 죽든지 아니면 함께 살든지 해야 한다는 원칙이 무조건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이 형이상학적 죄의 본질이다.”<sup>12)</sup>

“도덕은 항상 현실세계의 목표에 의해서도 규정된다. 어떤 목적을

9) 은나라의 충신 백이(伯夷)와 숙제(叔齊)가 주나라 땅에서 고사리를 캐먹는다고 질타한 성삼문은 은문의 정치적 무의미성(無意味性)을 통찰한 셈이다.

10) 아렌트는 나치체제에서 소극적인 거부자의 ‘비정치적 성격’과 술 남매와 같은 적극적 저항자의 정치적 성격을 구별하고 있다. 술 남매와 같이 자신의 항의행동을 정치적 맥락에서 적절하게 수행했다면 그들은 정치적 책임을 다한 것이고, 악을 순전히 사적인 맥락에서 피하는 행동은 도덕적 죄를 면하게 해줄 뿐이라는 것이다. 아렌트는 정치적 책임을 집단적이라고 전제했음에도, 이 경우 정치적 책임을 개인적인 책임으로 파악한 것이다.

11) Jaspers, Karl, *Psychologie der Weltanschauungen*(Springer, 1919).

12) 야스퍼스/이재승(역), 죄의 문제: 시민의 정치적 책임(엘피, 2014), 87쪽.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나는 도덕적으로 내 자신의 생명을 걸 도덕적인 의무를 질 수도 있다. 그러나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도 아무 것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생명을 희생하라는 요구는 도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는 또 다른 죄의식이 있다. 형이상적인 죄는 적어도 인간으로서 인간과의 절대적 연대가 결핍되어 있다는 점에 있다. 도덕적으로 성립가능한 요구가 이미 멈춘 곳에서 형이상학적 죄는 씻을 수 없는 요구로 존재한다. 내가 있는 곳에서 불법과 범죄가 자행된다면 연대는 훼손된 것이다. 불법과 범죄를 막기 위해 용의주도하게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내놓았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도덕적인 죄는 없겠지만 형이상학적 죄는 남는다. 내가 있는 곳에서 불법과 범죄가 자행되고 다른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나는 살아남았다면, 내 안에서 하나의 소리가 들리고, 이를 통해 나는 안다. 살아남아 있다는 것이 나의 죄이다.”<sup>13)</sup>

형이상학적 죄는 바로 도덕적 의무를 넘어가는 곳에서 등장한다. 그것은 도덕을 초과하는 도덕이자 의무를 능가하는 의무와 관련되며, 다른 모든 죄와 책임의 전제라고 할 수도 있다. 타인의 비참에 법적인 죄와 도덕적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도, 수만리 고적한 산야에 은둔한 현자도, 타인을 구조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조차도 무고한 자의 죽음에 대하여 형이상학적 죄를 피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형이상학적 죄는 연대가 파괴된 것에 대한 인간의 상상력이나 공감능력, 타자의 고통에 함께 울고 감응하는 인간존재의 중력, 한 마디로 인간성에 대한 규정이다. 그것은 깊은 슬픔, 무력감에서 죄책감, 고통, 트라우마, 우울증에 이르는 다양한 심리적 징후들을 포괄한다. 어쩌면 루소가 말한 자기애(amour de soi)의 확장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죄책감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갖는다. “나는 살아남았다. 고로 나는 죄인이다. 내 친구, 내 이웃이 대신 죽었기 때문이다.”<sup>14)</sup> 아마도 내 대신 그가 죽었다는 감정은 파괴된 연대에 대한 근원적 반응으로서 죄책감이다. 원래 죄책감은 가해자의 몫이지만 이와 같이 가해자

13) 야스퍼스, 앞의 책, 144쪽.

14) 아감벤/정문영(역), 아우슈비츠의 남은 자들(새물결, 2012), 134쪽.

가 아닌 사람들도 자신을 깊이 책망한다. 우리는 세월호에서 살아나온 승객이나 유대인 수용소 생존자들에게 법적인 죄를 물을 수도 없고 도덕적인 비난을 퍼부을 수도 없다. 그런데도 생존자들은 자신을 비난하고 때로는 용서하지 않는다. 주변에서 아무리 네 잘못이 아니라 해도 생존자의 죄책감은 막무가내로 고개를 쳐들기 때문이다. 야스퍼스는 이 죄에 관해 개인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철학과 문학의 노작에서 얼핏 제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브레히트는 ‘살아남은 자(der Überlebende)’라는 시에서 이러한 감정을 잘 표현했다.<sup>15)</sup> 그는 나치로부터 탈출하려다 피레네 산맥에서 자살한 친구 벤야민을 기억하며 시를 썼는데 ‘내 대신 죽었다’는 감정이 묻어난다. 프리모 레비도 “살아남은 자”라는 시에서 내 대신 죽었다는 감정과 끔찍하게 싸우고 있다.<sup>16)</sup>

형이상학적 죄는 경험적으로 살아남은 자, 사태 이후를 살아가는 자가 망자에게 느끼는 죄책감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존자의 죄책감(연대감)도 관계의 친밀도에 따라 유형화될 수 있다. 아우슈비츠 생존자나 세월호 생존자와 같이 바로 친한 동료와 벗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살아남은 사람들, 면발치에서 참사를 지켜보았던 사람들, 사태 이후에 태어나 과거의 역사를 떠안은 사람들. 이들이 느끼는 죄책감의 농밀도는 처지에 따라 다를지도 모른다. 그러나 형이상학적 죄는 현실적이든 상상적이든 파괴된 인간의 연대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현재를 사는 사람들에게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인류애적 행동을 요청한다.

실제로 트라우마와 죄책감은 구별해야 옳다. 죄책감은 망자에 대해 부

15) “물론 나는 알고 있다/오직 운이 좋았던 덕택에/나는 그 많은 친구들보다 오래 살아남았다./그러나 지난 밤 꿈속에서/이 친구들이 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강한 자는 살아 남는다’/그러자 나는 자신이 미워졌다.”

16) “(전략) 돌아가게! 제발 나를 내버려두고/돌아가게, 먼저 간 동료들이여!/난 아직 어느 누구의 것도 빼앗은 적이 없고/어느 누구의 빵 한 조각도 훔친 적이 없네./그리고 지금까지/나 때문에 정말 단 한 사람도 죽은 적이 없네./제발 그대들은 그대들의 세상으로 어서 돌아가게./내가 아직 살아서/내가 아직 죽지 못해서/먹고, 입고, 잠자며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는 게/어찌 내 탓이고 내 잘못된란 말인가!”: 인용은 레비/이산하(역), 살아남은 자의 아픔(노마드북스, 2011), 103쪽.

분적이지만 가해자로서의 의식이고, 트라우마는 피해자로서의 상처다. 엄밀한 의미에서 결코 같은 것이 아니지만 집단적인 희생 앞에서 가해자가 아니더라도 순전히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죄책감을 가진다는 인간적 사실이 중요해 보인다. 유대인 수용소 생존자인 베텔하임은 <살아남은 자>에서 “죄책감을 느낄 수 있어야만 우리는 인간일 수 있다. 객관적으로 보아 죄가 없을 때에도 인간은 죄책감을 느낄 수 있어야만 한다.”<sup>17)</sup>고 말한다. 야스퍼스는 도덕적 죄와 관련해서 “참회할 능력이 있는 자만이 도덕적으로 유죄”라고 지적했다.<sup>18)</sup> 이 말은 형이상학적으로 유죄임을 느끼는 자만이 인간이라는 의미로 확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데 학살과 참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또는 수용소 생존자들이 악몽에 사로잡혀 자신을 죄책감의 감옥에 가두어 놓는다면 이는 불행한 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으로서의 삶의 의지는 말할 것도 없고, 집단적 리비도, 공동체의 삶에 대한 기본적 욕동마저도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자아와의 관계, 타인과의 연대, 공동체 그 모든 것에 대해 견잡을 수 없는 무력감과 무망감에 빠지게 될 것이다.<sup>19)</sup> 극복과 반전이 필요하다. 다행히 요즈음 트라우마나 힐링이 유행어가 될 정도로 사람들이 소통, 치유, 성찰을 말하고, 여기저기에서 트라우마센터나 치유센터가 설립되고 있다. 광주에는 ‘5.18 트라우마센터’가, 서울에는 고문을 통해 간첩으로 조작된 피해자들이 세운 ‘진실의 힘’이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산에도 트라우마 센터가 설치되었다.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소통하고 상처를 극복해야 하지만 상처가 말처럼 쉽게 치유되지는 않는다. 또한 국가폭력 앞에서 개인적인 치유는 그 한 국면일 뿐이지 국면 전체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sup>20)</sup> 개인적인 치유는 상처로부터의 개인적 해방—이게 진정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스럽다—을 의미하는 것이지 상처의 원인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트라우마는 결코 사적인 것이 아니므로 트

17) 인용은 아감벤, 앞의 책, 141쪽.

18) 야스퍼스, 앞의 책, 134쪽.

19) 허먼/최현정(역), 트라우마(열린책들, 2012), 225쪽 이하.

20) 이재승, “화해의 문법: 시민정치의 관점에서”, 민주법학 제46호(2011.7), 123-158쪽.

라우마에 대해 개인적 방어장치를 강화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공적인 방어기제, 달리 말하면, 국가폭력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의 보증(guarantee of non-repetition)이 관건이다. 그것은 트라우마로부터 집단적 해방을 추구한다.

### Ⅲ. 제주도에서의 죽음

#### 1. 개죽음과 산죽음

「목마른 신들」은 화해를 전면적으로 추구한 작품이다. 그러나 4.3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는다면 화해의 언설은 언어적 인플레이션이다. 화해의 조건은 진실의 발견이고, 진실의 인정과 책임의 인정 나아가 책임의 이행이다. 그래서 국가폭력 앞에서 화해의 조건을 제대로 갖추기는 매우 어렵다. 「목마른 신들」에서 작가는 황당한 죽음, 죽음 같지 않은 죽음, 개죽음을 통해서 제주4.3사건의 망자들이 인간의 품위에 어울리는 죽음을 맞이하지 못했음을 드러낸다. 수만 명의 망자들이 목마른 신들이 되어 제주도의 산야를 떠돌며, 제사상에서 음복도 못하는 혼령이 된 것이다. 산죽음이란 살아도 살아있다 할 것이 없는 삶을 말한다. 「목마른 신들」에 나오는 아들을 잃은 노파나 극도의 트라우마 속에서 자살한 순이삼촌이 그러한 삶의 예이다.<sup>21)</sup>

철학자 칸트는 <영구평화론>에서 전쟁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언급했다.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양측이 서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sup>22)</sup>고 했다. 작가는 제주4.3사건

21) 순이삼촌의 트라우마에 대한 분석은 음영철, “역사적 트라우마의 치료과정: 현 기영의 「순이삼촌」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1호(2013), 297-305쪽.

22) 칸트는 <영구평화론(예비조항 6조)>에서 전쟁중의 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어떠한 국가도 다른 나라와의 전쟁 동안에 장래의 평화 시기에 상호 신뢰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 틀림없는 다음과 같은 적대 행위, 예컨대, 암살자나 독

의 피해자들과 정부 사이에는 화해가 불가능할 정도로 정부가 제주4.3사건의 망자들에게 반칙을 자행했다고 고발한다. 아마도 영화 <레드헌트>에 나오는 다랑쉬굴 유해사건을 통해 목마른 신들은 죄다 반칙의 죽음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순교, 영웅적 죽음, 의사, 열사와 같이 대의를 위한 죽음도 있다. 이럴 때 희생(犧牲)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한다.<sup>23)</sup> 천수를 누리다 맞이한 편안한 죽음, 병사나 우연한 사고사, 중죄에 대한 대가로 인한 죽음도 있다. 그런데 죽어야 할 정도로 잘못된 것이 없는데도 타자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경우를 개죽음이라고 말한다. 그 개죽음이 국가권력이 의도적으로 자행한 것이었다면 망자나 유족에게는 국가와 화해할 길이 남아 있지 않다.

「순이삼촌」의 모티브도 주민을 소개한다고 유인하여 수 백 명을 사기적으로 학살하였던 조천읍 북촌리 사건이다. 「쇠와 살」에 1:11이라는 셈법이 나온다.<sup>24)</sup> 군경 한 사람이 살해당하면 민간인 10명을 죽여야 한다는 학살비례식이다. 원래는 1:10이었는데 마을 어른신이 학살에 항의하자 다시 그 어른신까지 학살했다는 사정을 반영해서 1:11이 되었다. 백살일비(百殺一匪)는 양민 백인을 죽이면 어쨌든 그중에 하나는 공비라는 몰살 공식이다.<sup>25)</sup> 군경은 군경의 죽음에 대한 보복으로 도피자 가족을 찾아 죽이는 대살(代殺)도 자행했다. 학살은 때로는 유희적 요소를 갖추었다. 배의 후미에 예비검속당한 주민들을 예닐곱씩 굴비 엮듯 앉혀놓고 바다를 쾌속으로 질주하다가 갑자기 선회하여 일시에 바다에 추락시켜 수장했던 것이다.<sup>26)</sup> 신희여행의 기념사진 촬영지인 정방폭포에서 군경은 주민

---

살자의 고용, 항복 조약의 파기, 적국에서의 반역 선동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칸트/이한구(역),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서광사, 1992), 18쪽 이하.

- 2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상의 희생(犧牲)이나 집단희생(集團犧牲)은 살인과 집단살해를 은폐하는 완곡어법이다. 희생은 본디 종교적 제례적 의미에서 순교 또는 자발적 헌신으로서 죽음을 의미하므로 군경에 의한 집단희생이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 아감벤은 홀로코스트(holocaust)도 종교적인 맥락에서의 희생(제물)을 의미하는데, 중세시대에도 유대인학살을 은폐하는 용어였다고 밝힌다. 아감벤, 앞의 책, 37-46쪽.

24) 쇠와 살, 147쪽.

25) 쇠와 살, 136쪽.

들을 끌어다 총살하여 시신을 망망대해로 유기하기도 했다.<sup>27)</sup> 그래서 혼령을 불러다 쓴 헛묘(假墓)가 제주도에 많다. 군경의 공격에 의해 화산섬의 굴들은 영화 <지슬>처럼 그대로 가족의 합장묘가 되기도 하였다. 6.25전쟁에서 경북 경산의 코발트 광산에서는 군경이 광산의 수직갱도 입구에서 보도연맹원들에게 총을 쏘아 아래로 떨어뜨려 시신을 차곡차곡 쌓아올리기도 하였다. 학살과 은폐를 동시에 수행하는 상상력이 범죄적으로 발휘된 것이다. 유대인 가스실과 시체소각로를 생각한다면, 유사시 국가권력의 진정한 고민은 효율적으로 인간을 죽이고 흔적도 없이 치우는 것뿐이다. 목마른 신들은 ‘수습하지 못한 주검들’ 또는 ‘당국에 의해 엄습을 금지당한 주검들’이다. 「목마른 신들」은 제주도민의 죽음이 인도에 반한 범죄<sup>28)</sup>임을 밝히는 고발장이다.

제주4.3사건을 통해서 국가는 인간의 선익(善益)을 위한 방편이 아니라 인간을 잡아먹는 식인(食人)<sup>29)</sup>임을 깨닫게 된다. 권력자들은 적과 동지를 구분하고 이른바 불편한 그룹을 박멸하고자 한다. 이에 맞서 인간을 위하여 새로운 국가관을 말하고, 새로운 인간적인 양심을 말해야 한다. 국가란 인간의 선익을 위한 도구이며, 인간이 결코 국가의 도구가 아니다. 권력자와 권위가 요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복종하는 권위주의적 양심이

26) 쇠와 살, 160쪽.

27) 목마른 신들, 89쪽.

28) 전시 평시를 막론하고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민족적 이유로 민간인에 대해 자행된 학살, 고문, 강제이주, 폭행 등을 인도에 반한 범죄라고 하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연합국통제위원회법률 제10호에 명문화되었으며, 각종 국제군사 재판소에서 주요한 전쟁범죄와 함께 다루어졌으며,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범죄이기도 하다.

29) 제로니모는 아파치족 전사들을 이끌고 멕시코 수비대를 상대로 연전연승을 거두며 자신의 권위를 굳혀 갔다. 어느 날 제로니모는 자신의 무훈에 기대어 백인들을 완전히 인디언 땅에서 몰아내겠다고 공언하며 자신을 멕시코 대통령처럼 권한을 집중시켜 왕으로 추대해 달라고 인디언 지도자들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인디언 지도자들은 그의 요구를 수락하지 않았다. 인디언들은 거대한 국가를 사람 잡아먹는 식인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식인의 노예로 전락하기보다는 자유인으로서 싸우다 죽겠다고 결정했다. 이 부분은 나카자와 신이치/김옥희(역), 곱에서 왕으로(동아시아, 2003), 169쪽.

아니라 매순간 인간적인 선의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실천하는 인간주의적 양심을 일깨우고 확충해야 한다.<sup>30)</sup> 「쇠와 살」에는 넘어진 청년의 코피를 친절하게 닦아준 후 그 청년을 총살하는 군인이 나온다.<sup>31)</sup> 그러나 그는 민간인 학살이 범죄라 선언하고 명령을 거부하는 군인이 되었어야 했다. 이러한 이상적인 군인은 한국현대사에 예를 찾기 어렵다.

## 2. 4.3사건의 진실

제주4.3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중요하다. 제주4.3사건의 본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어쩌면 분단을 극복한 시대가 오는 경우에도 온전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기영 선생은 제주4.3사건의 진실과 관련하여 끈덕지게 미국의 역할을 거론한다. 4.3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인 사과의 주체는 한국정부만이 아니라는 점을 미국정부도 알고 있을 것이다. 제주4.3사건에서 자행된 민간인 학살은 국가범죄나 인도에 반한 범죄이다.<sup>32)</sup> 그러나 이러한 국가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상이하다.

### 2.1. 공산폭동론

보수주의자들은 국가권력에 대한 도전을 국가범죄로 규정하고, 단독정부를 반대하고 총선거를 거부한 제주도 사람들을 국가의 적으로 규정한다. 「쇠와 살」은 불복산(不伏山)으로서 한라산과 제주도, 제주사람들의 운명을 예고한다.

“초토작전에 반대한 연대장 김익렬을 해임하고 그 자리에 박진경을 앉혔다. 경찰 총수 조병옥, 9연대 연대장 박진경은 새 국가 건설을 위해서라면 30만 전 도민을 희생시켜도 무방하다고 천명하였다. 그것은 미국이 결제한 목소리였다. 미국이 그 섬을 ‘레드 아일랜드’라고 낙인

30) 프롬/문국주(역), 불복종에 관하여(범우사, 1996), 17쪽 이하.

31) 쇠와 살, 151쪽.

32) 조성봉 감독의 다큐 영화 <레드헌트>는 국가범죄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찍자, 즉각 붉은 섬이라고 번역되었던 것이다.”<sup>33)</sup>

여기서 붉은 색은 피와 불을 의미했다. 해안선에서 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은 살육작전의 대상이 되었다. 소위 무장대는 일제가 버리고 간 구식 총을 보유한 300~500명으로 추산되는데 군경은 3만 여 명의 민간인을 살해하였다. 군경은 한라산에 숨어든 민간인을 ‘비무장 공비’라고 말했다. 그것은 형용모순이다.<sup>34)</sup> 어쨌든 최근에도 보수주의자들은 4.3을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라는 틀 속에서 민간인 살해를 두둔한다. 그들은 야만적인 국가폭력을 덮기 위해 남로당의 봉기를 유독 강조하지만, 그것은 4.3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계기들중 하나의 요소이다. 공산주의자들이 단정을 반대하고 봉기했다고 해서 제주도민을 모두 적으로, 공산 폭도로 규정하고 그렇게 토끼몰이 하듯이 죽일 수 없는 것이다.

## 2.2. 과잉진압론

범치주의자들은 4.3사건에서 이른바 단독정부를 반대하고 봉기한 무장대를 군경이 진압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민간인살상은 과잉진압이라고 규정한다. 즉 제주도민들에게도 책임을 지우고 정부에게도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식이다. 제주4.3사건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가 이러한 기조 위에서 작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본질적으로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1948년으로 다시 돌아 가보자. 그렇게 많은 민가를 방화하고 그렇게 많은 민간인을 거리낌 없이 죽이고, 붙잡힌 사람마저 그렇게 처형하겠다는 방침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일본군이 동학농민군이나 3.1만세참가자들을 학살할 때, 간도특설대가 독립군과 조선민중을 학살할 때 그 장면과 유사하다. 이른바 무장대는 일본군이 버리고 간 구식소총 300여 자루를

33) 쇠와 살, 135쪽.

34) “도대체 비무장공비란 뭐우짜? 무장도 안 한 사람을 공비라고 할 수 있어 마썸? 그 사람들은 중산간 부락 소각으로 갈 곳 잃어 한라산 밑 여기저기 동굴에 피해 살던 피난민이우다.”: 순이삼촌, 92쪽.

보유하였는데 그들을 제압하는 데에 그렇게 많은 살상은 필요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권력집단은 저항그룹에 대한 타격을 다른 잠재적인 저항 집단에 대한 본보기로 활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극한적인 형태의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이른바 미치광이 이론(madman theory)<sup>35)</sup>이다. 한 마디로 “나 미친놈이다. 건들지 마라. 수틀리면 몰살이다”는 시그널을 주려는 것이다. 폭력의 극단적 행사가 지배권력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국면에서 가능한 전략이다. 패권세력만이 이러한 정책을 펼 수 있고 이러한 정책 아래서 약한 저항자들은 완전하게 궤멸된다. 제주4.3사건은 이러한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 만 명이 무방비상태로 살해당하게 된 것이다. 비행기 폭격이나 과도한 공격무기에 의해 피해자의 규모가 뜻밖에 커진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작전을 통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살되었다. 대사를 치르려면 사기그릇 좀 깨지게 마련이라는 속담이 들어맞을 상황이 아니었다.<sup>36)</sup> 정부의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전제하는 과잉진압론은 모호한 얼버무리임이다. 제주4.3기념관에는 평화협상을 추진했던 김익렬 연대장과 무장대장 김달삼의 합성사진이 걸려 있는데 이는 제주도 사람들의 좌절된 염원을 떠올린다. 그들의 희망대로 평화가 왔더라면 4.3봉기는 건국 초기에 제주도 사람들이 펼친 열정적인 정치의 에피소드로 회자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패권주의자들은 그 휴전약속을 깨뜨리고 강경한 토벌정책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1948년이라는 시점에는 여전히 유럽과 일본에서 전쟁범죄의 청산이 진행 중이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전쟁범죄의 청산은 마무리되고 냉전체제가 공고해지던 시기이다. 그런데 냉전질서의 두 축인 미국과 소련의 전쟁범죄는 거론되지도 않았다. 미국은 패배가 임박한 일본에 원자폭탄을 두발이나 시험 삼아 투하했다. 한편, 미국은 정치적 목적 때문에 전쟁범죄의 최고책임자인 천황을 기소하지도 않았고 생체실험을 자행한 731부대를

35) 미치광이 이론은 닉슨이 공산권을 다루는 외교전략이었다고 하지만 마키아벨리가 이미 간명하게 “때때로 실성한 채하는 것이 매우 현명한 일”이라고 정치가들에게 조언하였다. 마키아벨리/강정인·안선재(역), 로마사논고(한길사, 2003), 418쪽.

36) 순이삼촌, 93쪽.

불문에 부쳤다. 미국과 영국은 대규모의 폭격기를 동원하여 드레스덴에 피난한 수만 명의 독일 민간인들에게 엄청난 양의 폭탄을 퍼부어 몰살시켰다. 영화 <피아니스트>는 소련군이 수 만 명의 독일군 포로들을 강제 노동으로 혹사시켜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점을 그리고 있다. 이 모든 만행은 승전국이 자행했기 때문에 전쟁범죄로 문의조차 되지 않았다. 제주4.3 사건은 군정기인 1947년에 시작되어 건국 이후 미군의 지휘통제 아래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도 미군의 개입과 관련한 상황들을 보여주는 사진자료들을 담고 있다. 미군이 제작한 제주 4.3 다큐자료 <메이데이>도 이러한 상황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미 지구적 수준에서 적대적 공생관계를 형성한 미국과 소련 두 슈퍼파워가 한반도에 그어놓은 정치적 세력분계선을 제주도 사람들이 낭만적 민족주의에 입각해 거부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다. 건국전야에 단독정부가 민족적 대의에 어긋난다며 남북협상을 추진하거나 단정수립을 반대하고 여기에 불참한 양심세력들도 적지 않았다. 식민지배를 겪었던 민족으로서 통일조국을 염원하는 것은 정당한 대의이고, 남쪽이든 북쪽이든 단독정부를 수립하려는 시도가 민족적 대의를 저버리는 행태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단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단지 정치적 대세를 이루지 못했다는 점이 그들의 죄이다. 한반도는 분단을 추구하던 세력들의 수중에 떨어졌고, 국제적인 분할을 획책하는 미국과 소련의 영향 아래 놓였던 것이다. 제주4.3사건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에 확립된 패권의 정치적 분계선을 흔들려는 제3세력에 대한 패권주의자들의 무자비한 대응이었다. 그들은 무력 대 무력의 충돌로서 상대적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비무장 민간인을 적으로 규정하고 절대적 폭력을 행사했다. 그래서 작가는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전투가 아니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타인의 목숨을 빼앗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죽인 것은 맨몸, 빈손의 연약한 인간이었다. 사병들은 사태가 끝나 육지로 돌아갔을 때, 차마 자신의 무용담을 남한테 들려줄 수 없었다. 그것이 용기가 아니었으므로. 오직 장교들만이 그 술한 시신 위에서 빠르게 진급했을 따름이다.”<sup>37)</sup>

37) 쇠와 살, 159쪽.

## IV. 책임의 상속과 화해, 그리고 판타지

### 1. 책임의 상속

「목마른 신들」에서 학살의 죄악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목마른 신들」을 설계한 작가, 4.3때 죽은 아들 영수를 오매불망하다 최근에 저 세상으로 간 노파, 영수의 혼령에 붙잡힌 서청노인의 손자 정도이다. 그들은 여전히 법적인 죄나 도덕적인 죄로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이나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간다. 물론 젊은 날에 심방은 서청의 안내자로서 학살에 가담하였기에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도 유죄일 것이다. 심방은 한라산 반대쪽 마을에서 서청의 학살과 파괴를 만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짐작되기 때문이다. 법의 심판을 면했을지라도 그는 엄청난 죄의식을 피하지 못했다. 한편 심방은 군대의 초토화작전에서 어머니를 잃은 4.3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이처럼 순수한 가해자도, 순수한 피해자도 아닌 회색지대에 속한 심방과 같은 인물이 역사 속에서 화해자로서의 소명을 받는 것 같다.

야스퍼스는 형이상학적 죄의 양상을 이렇게 설명했다. “일단 무제약성의 경지에 도달했던 사람 중에 이러한 경지를 모든 사람에게 증명할 수 없다는 데에 무력감을 체험한 사람들이 형이상학적 죄를 가장 심각하게 의식한다.”<sup>38)</sup> 작가, 정신과의사, 철학자, 만신은 바로 이러한 형이상학적 죄를 예민하게 느끼고 숨겨진 의미를 전개한다. 이러한 죄책감과 트라우마가 평범한 인간을 신학자로, 작가로, 아마도 소설처럼 무당으로 만들기도 한다. 작가는 인간을 고통에서 구하기 위해 허구를 창조한다. 형이상학적 죄는 특별한 유형의 죄가 아니라 고통의 심연에서 자신을 구하고 인간을 구원하려는 열망이 아닐까 생각한다. 또 그러한 전복을 이루는 때에만 인간은 살아갈 이유도 얻고 공동의 삶에 대한 소명도 받게 된다. 심방은 말한다.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자들이 더 큰 호소력으로 나에게 밀착해온다.’<sup>39)</sup> 이제 무병은 심방의 마음에서 죄책감을 녹이고 스스로

38) 야스퍼스, 앞의 책, 88쪽.

39) 목마른 신들, 76쪽.

를 정화하는 연옥이며, 무병앎이는 바로 야스퍼스가 말한 무제약적인 내면적 실천행동(inneres Handeln)이라 할 수 있다. 수면제를 털어 넣었던 청년은 무병의 용광로를 거쳐 죽은 자들과 더불어 살 운명을 깨닫고, 화해자의 길을 걷는다. 사죄와 화해의 포럼으로서 전통적인 곳을 사용한 「목마른 신들」은 마르케스의 『백년의 고독』을 떠오르게 한다. 무속적이고 초현실적인 장치를 가동하여 인간의 열망을 펼치는 소설양식을 마술적 리얼리즘(magic realism)<sup>40)</sup>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라틴 아메리카 작가들에게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서구의 리얼리즘에 대한 제3세계의 해방적 리얼리즘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생각한다. 황석영의 『손님』도 황해도 구형식을 이용해 화해의 문제를 다룬 것으로 유명하다.

「목마른 신들」에서 심방은 인물들의 상이한 죄책감과 트라우마를 질료로 사용하여 걱정적인 원혼굿을 펼쳐서 마침내 가해자인 서청노인이 영수의 혼령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청하게 한다. 서청 노인의 손자가 혼령을 뒤집어쓴 장면은 여러모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청 노인에게 혼령이 붙는다면 가해자의 신경증이 발현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손자에게 나타난 이상증세는 어떻게 봐야 할까? 손자는 학살과 무관한 시대에 태어났으므로 법적인 의미에서도 도덕적인 의미에서도 죄인이 아니다. 손자가 4.3사건에서 자식을 잃은 노파와 조우했던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 어쨌든 손자의 이상행동은 무의식 속에 잠겨있던 죄책감, 프로이트의 용어로 하면 ‘무의식적 죄의식’<sup>41)</sup>이나 ‘무의식의 감정’<sup>42)</sup>이 작동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열일곱 나이의 학생이라면 4.3에 관한 소문이나 역사지식을 통해서 이복출신 할아버지의 과거 행적을 알아채고 가해자의 후손으로서 죄책감을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을 것이라

40) 김춘진, “라틴아메리카 현대소설의 문제의식과 자기발견”, 외국문학연구 제8호 (2001), 109-127쪽; Hart, Stephen M., “Magical Realism in the Americas: Politicised Ghosts in One Hundred Years of Solitude, The House of the Spirits, and Beloved”, *Journal of Iberian and Latin American Studies*, Vol. 9, No. 2, 2003, 115-123쪽.

41) 프로이트/이윤기(역), *종교의 기원*(열린책들, 2004), 16쪽.

42) 프로이트, 앞의 책(주 3), 178쪽.

고 짐작된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동문시장을 지나는데 고사리를 팔던 노파가 말을 걸어오며 자신의 얼굴에서 4.3때 억울하게 죽은 아들 영수를 간절하게 더듬는다. 노파의 애처로운 눈길에 그만 지금까지 억압해왔던 손자의 죄책감이 사슬에서 풀려난 것이라. 그 후 손자는 제 손에 묻은 학살자의 피를 씻어내겠다며 강박적 행동을 보이다가 급기야 영수의 혼령을 뒤집어쓰면서 심한 4.3앓이를 했던 것이다.

소설의 내용처럼 손자의 죄책감이 혼령을 부를 정도로 과연 강렬할 수 있는지, 할아버지의 본래의 죄책감이 손자에게 전이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필자의 역량을 넘어가지만, 소설은 오늘날 중요한 철학적 주제인 책임의 상속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매우 흥미롭다. 혼령은 가해자의 ‘무고한’ 손자에게 할아버지의 죄(피)를 감염시킴으로써 역사적 정의와 책임을 적절하게 실현시켰다. 책임의 상속은 일반적으로 학살 이후에 태어난 새로운 세대의 책임문제를 제기한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에 태어난 일본의 전후세대가 과거 일본이 자행한 전쟁, 식민지배, 인권침해에 대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과거 한국정부가 엄청난 집단살해를 자행했는데 전후세대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이러한 범죄는 근본적으로 국가범죄이므로 국가의 책임도 불변적으로 존재한다. 전후세대의 개인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전쟁과 학살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이므로 그들에게 법적·도덕적 죄를 묻는 것은 당치 않은 일이다. 순전히 개인주의적 책임론에 따르면 손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학살에 대해 물을 책임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시각에서 후속세대에게 책임을 지운다. 이 경우 손자는 할아버지의 악행에 대해 도덕적 죄인으로서의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잘못을 청산해야하는 과제를 부담한다. 할아버지에게는 죄의 문제이지만 손자에게는 책임의 문제이다. 이 사례에서 노인에게는 죄로 인한 책임이, 손자에게는 죄 없는 책임이 동시에 성립한다. 죄(guilt)는 자신의 악행에 기초한 과거지향적인 속죄를 요구하지만, 책임(responsibility)은 피해배상을 포함하여 역사적 부정의의 구조를 바로 잡을 미래지향적인 책무이다.<sup>43)</sup> 할

43) 아이리스 영/허라금 외(역), 정치적 책임에 관하여(이후, 2011), 141쪽 이하.

아버지의 악행은 손자가 현재 누리고 있는 물질적 안락함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은 손자가 마음대로 회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좀 더 일반화한다면, 국가폭력이 자행된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국가폭력에서 법적·도덕적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국가에서 가치관, 정체성, 의식, 역사를 집단적으로 공유하고,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편익들을 향유해 왔기 때문에 국가폭력의 결과를 청산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sup>44)</sup>

## 2. 지속가능한 화해

그러면 이제 책임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문제이다. 「목마른 신들」에서 영수의 혼령은 서청 노인과 그 자손들에게 제사봉사를 요구했다.<sup>45)</sup> 제사는 매년 반복해서 돌아오는 것이므로 정기적이고, 회귀적이고, 계속적인 의무이다. 법적으로는 정기 채무라고 부른다. 국가폭력 이후 사회에서 화해는 지속가능한 화해이어야만 하므로 정기적인 제사의식은 매우 절묘한 해법이다. 원래 트라우마나 죄책감은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재발한다. 제사의식은 이렇게 재발하는 피해자의 트라우마나 가해자의 죄책감을 처리하는 기제가 된다.<sup>46)</sup> 제사의식은 봉사자가 죽는 날까지 받드는 것이므로 가해자가 희생자의 삶을 수용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국가폭력을 가해자가 한번 사죄했다고 해서 악행은 깨끗이 정화되지 않는다. 죄의 고백이

44) 야스퍼스는 전쟁범죄와 관련하여 ‘모두가 죄인’이라는 집단적 범죄를 부정하고 죄를 오로지 개인별로만 판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출발점과 달리 보통사람들의 집단적 도덕적 책임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한다. 야스퍼스는 선조의 잘못에 대한 집단적 도덕적 책임도 인정한다. 이 점에서 야스퍼스는 센텔의 입장과 흡사하다. 센텔/김명철(역), 정의란 무엇인가(와이즈메리, 2014), 309쪽 이하.

45) 영수의 혼령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난 무자년 시월 우리 마을 불탈 때 토벌대의 총에 맞아 죽은 불쌍한 영혼이우다. 열일곱 어린 나이 외아들로 죽어 홀로 남은 어머님한테 제삿밥 얻어먹은 불효잡니다. 이제 무정세월 흘러 어머님마저 세상을 하직하시니 불쌍한 우리 두 모자 어디 가서 제삿밥 얻어먹으리오?” 목마른 신들, 84쪽.

46) ‘강박행위와 종교행위’에 대해서는 프로이트, 앞의 책(주41), 9쪽 이하.

아니라 책임의 이행과 확충이 중요하다. 국가폭력의 피해자에게 보상금 몇 푼 쥐어주었다고 책임은 다 이행된 것은 아니다.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의무는 은행 빚을 갚는 것과 같은 열은 의무가 아니라 참회, 의식의 혁신, 제도적 개혁을 포함하는 두터운 의무이다.<sup>47)</sup> 그 의무는 지속적 화해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해서 신뢰의 관계를 요구한다. 제주도에 평화공원을 지어놓고 희생자를 재심사하겠다는 주장은 지속가능한 화해는커녕 유족들에게 트라우마를 도발하는 새로운 가해행위이다. 고문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다가 시류에 따라 자신이 수사했던 인물들이 빨갱이라고 했던 이아무개 경관의 행태도 유명하다. 이와 같이 기회주의적으로 사죄를 표한 자에게는 사죄의 심리적 지속이 애초 불가능하다. 한편 용서의 어려움과 관련해서 지책은 죄가 있으면 정의의 원칙에 따라 마땅히 처벌해야 하는데 처벌하지 않고 용서하겠다는 태도는 자신을 신의 위치에까지 격상시키고 신의 권능을 찬탈하려는 신성모독이라고 지적했던 점이 흥미롭다.<sup>48)</sup> 어쨌든 정치적인 현실, 폭력 구조에서의 가시적인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여건에서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용서는 가능하지 않으며, 혹여 용서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지속성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sup>49)</sup>

「목마른 신들」에 나타난 개인적 화해방안으로서 제사의식은 정기적인 4.3국가기념식에 견줄 만하다.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 후 제주4.3특별법이 통과되고 제주4.3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위원회의 활동결과는 2003년에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로 발간되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0월 31일에 4.3사건의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였다. 최근에는 제주4.3기념공원이 완성되고, 4월 3일이 공식적인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제주4.3사건과 관련한 일련의 시책들이 과연 만족스러운 조치였는지는 의문이다. 과거청산 작업은 집단적이고 정치적인 수준에서

47) 필자는 이 대비관념을 월처에게서 가져왔다. Walzer, Michael, *Thick and Thin: Moral Argument at Home and Abroad*(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4).

48) 슬라보예 지젝/이현우·김희진·정일권(역), *폭력이란 무엇인가: 폭력에 대한 6가지 뼈뚫한 성찰*(난장이, 2011), 207쪽 이하.

49) 이재승, 앞의 글(주20), 138쪽 이하.



지속가능한 화해를 만들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상징적인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4.3사건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화해의 참다운 조건은 무엇일까? 이미 유엔총회는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누려야 할 권리들을 이른바 ‘인권피해자권리장전’<sup>50)</sup>의 형태로 천명하였다. 동시에 이 권리장전을 국가폭력 이후 사회에서 국가의 책임과 시민의 책무로도 읽힌다. 피해자 권리장전은 가해자처벌이나 금전적 배상에 머물지 않고, 만족(satisfaction)과 재발방지의 보증(guarantee of non-repetition)을 강조한다. 재발방지의 보증은 국가폭력의 재발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트라우마의 재발을 동시에 억제한다. 예컨대, 진실의 완전한 규명, 유해발굴의 지속,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장애에 대한 재활치료, 심리적 고통에 대한 치유, 군경 언론미디어 의료종사자들에게 대한 국제인권법·국제인도법 교육, 일반시민에 대한 인권 교육, 역사교육, 임권침해사실의 공식적 기록과 교과서 수록, 인권침해를 야기했던 국가기구·법제·관행의 해체 등을 열거한다. 아울러 ‘불처벌투쟁원칙’<sup>51)</sup>은 피해자들의 진실에 대한 권리, 일반시민들의 진실에 대한 권리와 진실을 기억할 의무, 국가의 진실을 규명할 의무와 기록을 보존할 의무를 예시한다.

앞에서 말한 피해자권리장전이나 불처벌투쟁원칙에 기초해 과거청산의 원칙은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sup>52)</sup> 그것은 진실규명, 피해배상, 책임자처벌, 제도개혁, 정신적 쇄신이다. 첫째로, 사건의 진실을 완전하게 규명해야 한다. 진실에 대한 권리는 소멸하지 않다. 인간적 진실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더라도 인간에게 옳은 것을 이행하도록 촉구한다. 둘째로, 피

50)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dopted and proclaimed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0/147 of 16 December 2005.

51) Report of Diane Orentlicher, independent expert to update the Set of principles to combat impunity - Updated Set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through action to combat impunity(08/02/2005 E/CN.4/2005/102/Add.1)

52) 이재승, 국가범죄(엘피, 2010), 17쪽 이하.

해자의 지위를 회복시켜주어야 한다. 원상회복과 금전적인 배상을 이행해야 한다. 셋째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이는 강력한 청산हे게모니가 확립된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책임자 처벌이 없는 과거청산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넷째로, 학살을 조장한 제도를 혁파해야 한다. 민간인을 유사시에 끌어다 학살하는 관행이 존재하는 한, 정치적 반대자를 간첩이나 빨갱이로 몰아 처단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한, 그러한 만행은 반복되게 마련이다. 학살과 인권침해를 가능하게 했던 법과 제도, 관행은 권력기구들 속에 여전히 살아있다. 그런 면에서 웅장하게 조성된 4.3기념공원이나 수많은 조형물들은 진실과 새 출발에 대한 보증은 되지 못한다. 국가권력이 조형물을 통해 시민을 기만할지라도 시민은 자기기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만행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인권침해에 저항하고 연대하는 정신을 고취해야 한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은 국가권력이 아니라 시민들의 깨어있는 정신을 통해서만 실현된다. 국가의 야만을 멈추게 하는 것은 인간이다. 흐리멍덩하고 고분고분하고 복종만을 일삼는 인간은 야만적 권력의 포로가 되어 스스로를 망칠 뿐만 아니라 타인마저 불행하게 만들뿐이다.

### 3. 백조일손이라는 판타지

「목마른 신들」은 개인적 화해곳으로서 의미가 제한되지만 작가는 화해와 통합에 대한 보편적 열망을 표현한다. 백조일손지지(百祖一孫之地)<sup>53)</sup>에 대한 심방의 사설은 다음과 같다.

53) 제주4.3사건에서 많은 제주도민이 살해되었지만 제주4.3사건에서 연루되었다가 살아남은 사람들은 6.25전쟁중 예비검속에 의해 1950년 7월에 집단적으로 학살당했다. 252명의 모슬포 피살자들은 대정면, 한림면, 안덕면 지역에서 예비검속된 사람들이다. 당국은 피살자들의 시신에 대해 유족들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다가 1956년에 비로소 허가하였다. 유족들은 현장에서 132구의 시신을 수습하였으나 신원확인이 불가능했다. 일부 유족들은 유해를 수습하여 다른 곳에 개인적으로 묘를 조성하였지만 대다수는 현장에 유골을 형태만 갖추어 봉분을 마련하였다. 공동묘지는 이렇게 탄생하였다. 제주4.3진상조사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2003), 432쪽.

“모슬포에 가면 백조일손지더라는 공동묘지가 있다. 왜놈들이 탄약고로 쓰던 콘크리트 땅굴 속에 백 몇 십 구의 시신이 가득 담겨져 있었는데 칠년이 지난 후에야 겨우 이장 허가를 받은 가족들이 몰려들었을 때는 멀치것처럼 폭 썩어 육탈된 뼈들이 네 거 내 거 구분할 수 없게 얼크러져 있었다. 네 뼈다 내 뼈다 부질없이 다투던 유족들은 결국 저 조상들은 네 거 내 거 구별할 수 없으니 우리 모두 하나의 자손이 되어 섬기자고 의견의 일치를 본 다음 얼크러진 뼈들을 주워 맞춰 사람 형상을 만들고 일일이 봉분을 갖춰 매장했으니 그 공동묘지가 백조일손지다.”<sup>54)</sup>



백조일손묘역(모슬포)

정부당국은 6.25전쟁 중에 모슬포에서 학살된 예비검속자들의 유해수습을 금지하였다. 시신의 수습을 금하는 조치는 몸의 살해가 아니라 주검마저 죽이는 혼의 살해이다. 그것은 죽은 자가 원혼이 되어 가해자에게 상징적인 복수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봉쇄조치이다. 죽음마저 죽이려 한 권력에 맞서는 목소리를 소포클레스의 비극 『안티고네』에서도 듣게 된다. 오이디푸스의 불행한 딸 안티고네는 오빠 폴리니케스의 매장을 금지한 크레온 왕의 포고를 위반하고 오빠의 유해를 수습하다 비극적인 최후를

54) 목마른 신들, 90쪽.

맞았다. 그녀는 왕의 포고에 맞서면서 자신만의 죄의 정치를 보여주었다.

백조일손지지는 국가폭력의 참상을 알려주면서 역설적으로 극복의지를 표현한다. 이 묘지는 고통과 극복, 기억과 예언, 역사와 초월을 동시에 말하는 판타지다. 그것은 억압당한 세계를 극복하고 거친 대지에 생기를 불어넣으려는 「목마른 신들」의 열망을 반영한다. 이 묘지는 법의학 지식 이 없는 시대에 불가피한 매장방식이 아니라 비극을 집단적으로 극복하려는 망자와 살아남은 자들의 공동프로젝트이다. 이 공동묘지는 가해자인 서청노인과 무고한 손자가 공동으로 제사를 받드는 행위와 좋은 대칭을 이룬다. 이제 백여 구의 자연적 유해(corpus naturale)는 학살의 참상을 극복하려는 신비스러운 몸(corpus mysticum)으로 전환되었다.<sup>55)</sup> 제주4.3 사건에 관해서라면 어떠한 예술작품도 이 묘지보다 숭고한 형태를 갖추기 어려울 것 같다. 백조일손지지가 집단학살, 집단적 트라우마, 집단적 기억, 집단적 비전까지 함께 간직하기 때문이다. 작가는 4.3의 유지(遺地)에서 식민주의, 냉전질서, 분단체제를 극복하려는 민중의 견결한 유지(遺志)을 읽어냄으로써 묘지의 신비적 의미<sup>56)</sup>를 전해준다. 이것이 바로 작가가 추구하는 죄의 정치라고 판단한다.<sup>57)</sup> 그것은 인간은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투쟁해야 하며, 그러한 세계에서만 진정한 화해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55) Kantorowicz, Ernst, *The King's Two Bodies*(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7); 칸토로비츠에 대한 소개로는 임승휘, 절대왕정의 탄생(살림, 2004), 25쪽 이하.

56) 스콜라 철학자들은 성경의 해석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의미를 말한다. “문자는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가르치고, 비유는 네가 믿을 바를 가르치고, 도덕은 네가 행할 바를 가르치고, 신비는 네가 추구해야 할 바를 가르친다(littera gesta docet; quid credas, allegoria; moralis, quid agas; quo tendas, anagogia).” 이렇게 하여 해석자는 성경을 기술한 자가 실제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신 자신이 생각한 바에 도달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루살렘은 네 가지 의미를 가진다. 문자적인 의미에서 현실적인 도시, 비유적 의미에서 교회, 도덕적 의미에서 이상국가, 신비적 의미에서 영원한 생명(완성). 라트브루흐, 앞의 책, 161쪽.

57) 국립묘지의 정치에 대해서는 하상복, 죽은 자의 정치학: 프랑스 미국 한국 국립묘지의 탄생과 진화(모티브북, 2014).

## V. 쇠와 살

작가는 ‘구조’와 ‘유혈’이라는 장편(掌篇)에서 쇠와 살의 관념을 예리하게 드러낸다.<sup>58)</sup> 쇠는 기관총처럼 요란하고, 칼처럼 날카롭고, 얼음처럼 차갑다. 살은 보드랍고 연약하고 찢어지기 쉽다. 인간이 쇠를 잡으면 관료제의 부속품이 되고, 기계의 부품이 된다. 그러한 인간은 이제 상부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 기계처럼 수행하며 인간을 잡아먹는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보듯이 세상에는 자신의 직무에 충실했다고 변명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다. 프리모 레비는 아이히만을 빗대어 ‘생각하지 않는 죄’라는 시를 지었다.<sup>59)</sup> 물론 이러한 아이히만 유형 이외에도 사회 안에는 살육의 논리를 생산하는 이데올로그들과 심각한 광신도들이 산재해 있다. 그래서 학살을 극복하려는 과거청산의 정치에서 사상적인 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뉘른베르크 법정에서 인도에 반한 범죄와 전쟁범죄를 처벌하던 순간에도 미국과 한국 정부는 쇠로 전략한 인간들을 동원하여 제주도에서 학살을 자행하였다. 제주도에 평화의 기념관을 짓는 동안에도 강정에 해군기지를 건설하였다. 재일교포 유학생들을 희생물로 삼았던 조작간첩사건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국가배상을 하는 최근에도 유우성씨 사건에서 권력기관은 증거를 조작하였다. 현재 우리사회는 억압적인 과거를 거의 복구하였고 공직자들은 인간적인 양심을 지위간다. 쇠와 살은 영원한 모순을 겪고 있으며, 영원한 갈등상태에 있다. 쇠와 살 중에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 권력 대 인권, 사물 대 인간, 전쟁 대 평화, 소유 대 존재, 냉담 대 공감, 죽음 대 생명, 어느 편을 들어야 할까? 결단의 순간은 일상 속에 찾아온다.

인간은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이다. 오류를 범하지만 그 오류를 시정하고자 하며, 쓰러지기도 하지만 고갈되지 않으며, 어두운 과거에 놀려있기도 하지만 더 좋은 미래를 향해 끝도 없이 실험하고 도전하는 존

58) 쇠와 살, 141쪽 및 151쪽.

59) 레비, 앞의 책(주16), 31쪽.

재이다. 인간이 지닌 역량과 품덕에 부합하는 정치, 사회, 문화를 획득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 국가는 인간의 행복을 위한 방편이다.<sup>60)</sup> 인간이 함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멈출 때, 근본적인 정치가 사라질 때, 국가는 인간을 권력과 자본의 불쏘시개로 소비할 따름이다. 형이상학적 죄는 피할 수 없는 죄의 수렁이 아닌 평화의 공동체를 향한 충동이며,<sup>61)</sup> 인도적인 세계질서를 만들려는 정치적 에너지이다. 인간은 학살과 만행 앞에서 자신을 수동적인 피해자로 규정하지 말고 사회의 구조를 바꾸는 정치적 주체로 상상하고 행동해야 한다.<sup>62)</sup> 정치적인 행동만이 정치가 야기할지도 모르는 불행을 제거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것이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인간들의 정치적 책임이자 살아남은 자가 펼쳐야 할 ‘죄의 정치’이다.

---

60) Zinn, Howard, *Nine Fallacies on Law and Order*(Random House/Vintage, 1968), 119-122.

61) 이재승, 앞의 글(주7), 183-217쪽.

62) 바디우/이종영(역), 윤리학(동문선, 2001), 11쪽 이하.

# <참고문헌>

- 권창규, “어떤 죽음을, 어떻게 슬퍼할 것인가: 세월호에 대해, 세월호로부터”, 진보평론 61호(2014 가을호), 22-36쪽.
- 김종곤, “세월호 트라우마와 죽은 자와의 연대”, 진보평론 61호(2014/가을호), 71-88쪽.
- 김춘진, “라틴아메리카 현대소설의 문제의식과 자기발견”, 외국문학연구 제8호(2001), 109-127쪽.
- 나카자와 신이치/김옥희(역), 꿈에서 왕으로, 동아시아, 2003.
- 라드브루흐/최종고(역), 법철학, 삼영사, 2002.
- 레비/이현경(역), 이것이 인간인가, 돌베개, 2010.
- \_\_\_\_\_/이산하(역), 살아남은 자의 아픔, 노마드북스, 2011.
- 마키아벨리/강정인·안선재(역), 로마사논고, 한길사, 2003.
- 바디우/이종영(역), 윤리학, 동문선, 2001.
- 버틀러/양효실 옮김, 불확실한 삶,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8.
- 센텔/김명철(역), 정의란 무엇인가, 와이즈베리, 2014.
- 슬라보예 지젝/이현우·김희진·정일권(역), 폭력이란 무엇인가: 폭력에 대한 6가지 뼈대한 성찰, 난장이, 2011.
- 아감벤/정문영(역), 아우슈비츠의 남은 자들, 새물결, 2012.
- 아이리스 영/허라금 외(역), 정치적 책임에 관하여, 이후, 2011.
- 야스퍼스/이재승(역), 죄의 문제-시민의 정치적 책임, 앨피, 2014.
- 윤희철, “역사적 트라우마의 치료과정- 현기영의 「순이삼촌」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권 11호(2013), 297-305쪽.
- 이재승, 국가범죄, 앨피, 2010.
- \_\_\_\_\_, “국가범죄와 야스퍼스의 책임론”, 사회와역사 101호(2014.5), 183-217쪽.
- \_\_\_\_\_, “화해의 문법: 시민정치의 관점에서”, 민주법학 46호(2011.7), 123-158쪽.
- 임승희, 절대왕정의 탄생, 살림, 2004.
- 정원옥, 국가폭력에 의한 의문사 사건과 애도의 정치,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제주4.3진상조사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2003.
- 프로이트/이윤기(역), 종교의 기원, 열린책들, 2004.
- \_\_\_\_\_/윤희기·박희부(옮김),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열린책들, 2014.
- 프롬/문국주(역), 불복종에 관하여, 범우사, 1996.
- 하상복, 죽은 자의 정치학 - 프랑스 미국 한국 국립묘지의 탄생과 진화, 모티브북, 2014.
- 허먼/최현정(역), 트라우마, 열린책들, 2012.
- 현기영, 순이삼촌, 동아출판사, 1995.

\_\_\_\_\_, 마지막 테우리, 창비, 2006.

de las Casas, Bartolomé, *A Short Account of the Destruction of the Indies*, Penguin, 2004.

La Caze, Marguerite, “At First Blush: The Politics of Guilt and Shame”, *Parresia* 18(2013), 85-99쪽.

Hart, Stephen M., “Magical Realism in the Americas: Politicized Ghosts in One Hundred Years of Solitude, The House of the Spirits, and Beloved”, *Journal of Iberian and Latin American Studies*, Vol. 9, No. 2, 2003, 115-123쪽.

Jaspers, Karl, *Psychologie der Weltanschauungen*, Springer, 1919.

Jie-Hyun Lim, “Victimhood Nationalism and History Reconciliation in East Asia”, *History Compass*, Vol. 8(2010), 1 - 10쪽.

Kantorowicz, Ernst, *The King's Two Bodi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7.

Schaap, Andrew, “Guilty Subjects and Political Responsibility: Arendt, Jaspers and the Resonance of the 'German Question' in Politics of Reconciliation”, *Political Studies* Vol. 49(2001), 749-766쪽.

Walzer, Michael, *Thick and Thin: Moral Argument at Home and Abroad*,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4.

Zinn, Howard, *Nine Fallacies on Law and Order*, Random House/Vintage, 1968.



<Abstract>

## Shamanistic Initiatory Illness as a Metaphysical Guilt: Reading Hyun Ki-Young's <the Thirsty Spirits>

Jaeseung Lee

Professor, Konkuk Univ.

This essay reviews two short stories “The Thirsty Spirits” and “Iron and Flesh” by Ki-young Hyun from the perspective of transitional justice. I use the concept of metaphysical guilt, sustainable reconciliation and inheritance of responsibility as analytic tools. “The Thirsty Spirits” tries to make reconciliation between the spirit of the slaughtered and a member of the evildoing group in Jeju 4.3 Massacre, and “Iron and Flesh” is composed of fragmentary stories which discloses the total truth of Jeju 4.3 massacre.

I illuminate the internal side of the novelist Hyun, the shaman and the grandson of the wrongdoer, under the concept of the metaphysical guilt. K. Jaspers explained the responsibility of the ordinary Germans in relation to the Nazis crimes on the basis of the metaphysical guilt immediately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 survivor's guilt as the metaphysical guilt is feared to cause self-destruction, unless it would be changed into the positive political aspiration for the transformation of human relations and societal structure. I define the shamanistic initiatory illness as a purgatory for the mental purification which sublimates melancholy of the metaphysically or morally guilty into the will and capability of reconciliation.

The novelist Hyun develops a politics of guilt and reconciliation

through a restoration of the relations between the victim and the offender. The Shaman as a mediator solves the problem of being possessed with a ghost of the innocent and paved the way for the sustainable reconciliation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inheritance of responsibility. But the personal reconciliation and political reconciliation should be clearly differentiated. It will be argued that the collective reconciliation including the political transformation be more reliable than the personal reconciliation based upon exchange of private emotions in the post-conflict society. In the concluding story-telling, the shaman develops fully the mystic meaning of fantasy of the Baek-jo-il-son-ji-ji and envisions the power of solidarity to realize the peaceful world. I conclude that Hyun realizes appropriately the principle of the transitional justice.

Key phrases: Iron and Flesh, Inheritance of Responsibility, Jeju 4.3 Massacre. Ki-Young Hyun, Metaphysical Guilt, Politics of Guilt, Sense of Guilt, Schuldbewußtsein, Shamanistic Initiatory Illness, Survivor's Guilt, Sustainable Reconciliation, The Last Herdman, The Thirsty Spirits